**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 방희선**

*2021.09.07 정지원*

**구인난이라며 지원사업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회비(21만원: 14만(동영상) + 7만(수첩))걷는 역설**

*2021.09.07 정지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돈 쓰는 네 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 그 중 “남의 동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돈 값을 하든 말든 함부로 쓴다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쓰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의 2021 「기능사 취득 특성화고 재학생 양성교육 및 경력수첩 발급」 지원사업이 6일부터 시작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20시간 동영상 강의와 경력수첩을 발급함으로 전기공사업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이 예쁜 이 사업의 실체는 가관이다. 지원비 21만원 중 14만원은 20시간짜리 동영상 강의이고 7만원은 경력수첩이라는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이 적혀있는 수첩이다. 만약 지원을 안 받고 취업을 하고 싶으면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인력난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인 구직의 매체가 돼야 할 전공협의 “회비문턱”(20시간 동영상, 경력수첩)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있고, 문턱(21만원 규모의 동영상, 경력수첩)을 만든 부처(전공협)가 주체가 되는 지원사업이 구인난 해소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자격증, 학교에서 시행하는 전기교육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직허가 명목으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갑질”횡포이다. 게다가 공립학교로 보낸 공문에서는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 이라는 황당무계한 태도(요즘 말로 가스라이팅)를 보였다.

전공협의 공교육, 자격증 무시와 안전·교육 명목으로 눈 먼 나랏돈을 탕진하고, 구직자들에게 당당하게 회비를 요구하는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전기분야 기강과 세금 운용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 끝부분을 공교육에게 감히 “만전 기함”을 요구하는 기득권에게 보낸다. “知足願云止(족한 줄 알고 그치길 바란다).”

독후감:

똘기있는 판사의 자서전이다. 작가이자 주인공의 삶을 어설프게 따라 해보았다.